2024 — 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2년의 기록

KOREA-CANADA Year of Cultural Exchanges A Two-Year Journey

L'année des échanges culturels CORÉE-CANADA Un parcours de deux ans



KOFICE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KOREA-CANADA

Year of Cultural Exchanges

L'année des échanges culturels

CORÉE-CANADA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으로
한국과 세계 각국 간의 문화교류를 촉진하고
국제적인 문화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문화로 한국과 세계를 잇는 네트워크 허브’를 비전으로
세계인들과의 교류를 더욱 확산시켜
‘공감’과 ‘상생’의 국제문화교류를 실현하는 문화 허브가 되겠습니다.

목차
Contents

1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 6

· 상호 문화교류의 해
/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8
· 공식로고 및 홍보채널 9

2 사업 성과 10

3 2024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16

· 다자간 쌍방향 협업
- 개막행사 18
- 한국-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 22
-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 26

· 참여주체 다변화
-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32

· 장르 다양화
- 한국-캐나다 문학출판 교류 35

4 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38

· (기획사업) 다자간 쌍방향 협업
- 한국-캐나다 미래세대 참여 뮤지컬 공동 창·제작 40
-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48
- 한국 캐나다 융합예술 특별전 54

· (지원사업) 다자간 쌍방향 협업
- 한국-캐나다 거리예술축제 교류지원 사업 60
- 한국-캐나다 음악축제 교류지원 사업 63
- 한국-캐나다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교류지원 사업 66
- 한국-캐나다 국제영화제 교류지원 사업 72

· 지속교류 기반구축
- 한국 청년예술가 후속 지원사업 78
- 토론토국제영화제 협력사업 80
- 2024-2025년 민간공식인증사업 82

· 현지정부 협력사업
- 24년도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 86
- 25년도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 87

1

상호 문화교류의 해 의미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과 특별한 외교적 계기가 있는 수교 국가와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고 연중 문화교류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양국 간 상호 문화 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있다.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한국과 캐나다는 1963년 수교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국은 수교 60주년을 기념하여 2022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선포하였다. 이후 2024년 6월 25일 '문화'를 매개로 양국 간 교류를 확대하고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2년간 다채로운 문화예술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상호 이해와 신뢰를 심화하고 미래세대 간 협력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공식 로고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상징하는 공식 로고는 양국의 문화적 상징인 태극의 물결과 단풍잎을 결합한 형태로 캐나다 문화유산부에서 제작하였다. 물결은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 흐름과 '한류'를 단풍잎은 캐나다의 정체성과 포용적 가치를 상징한다. 두 요소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형상은 양국이 문화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로고의 검은 윤곽선은 태극기의 사괘(건·곤·감·리)를 모티프로 하여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조화와 균형의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한국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KOREA-CANADA Year of Cultural Exchanges L'année des échanges culturels CORÉE-CANADA
캐나다	2024·2025 CANADA-KOREA CANADA-CORÉE

홍보채널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ko_ca_culturalyear/

페이스북
www.facebook.com/KoCaCulturalyear/

2

사업성과

사업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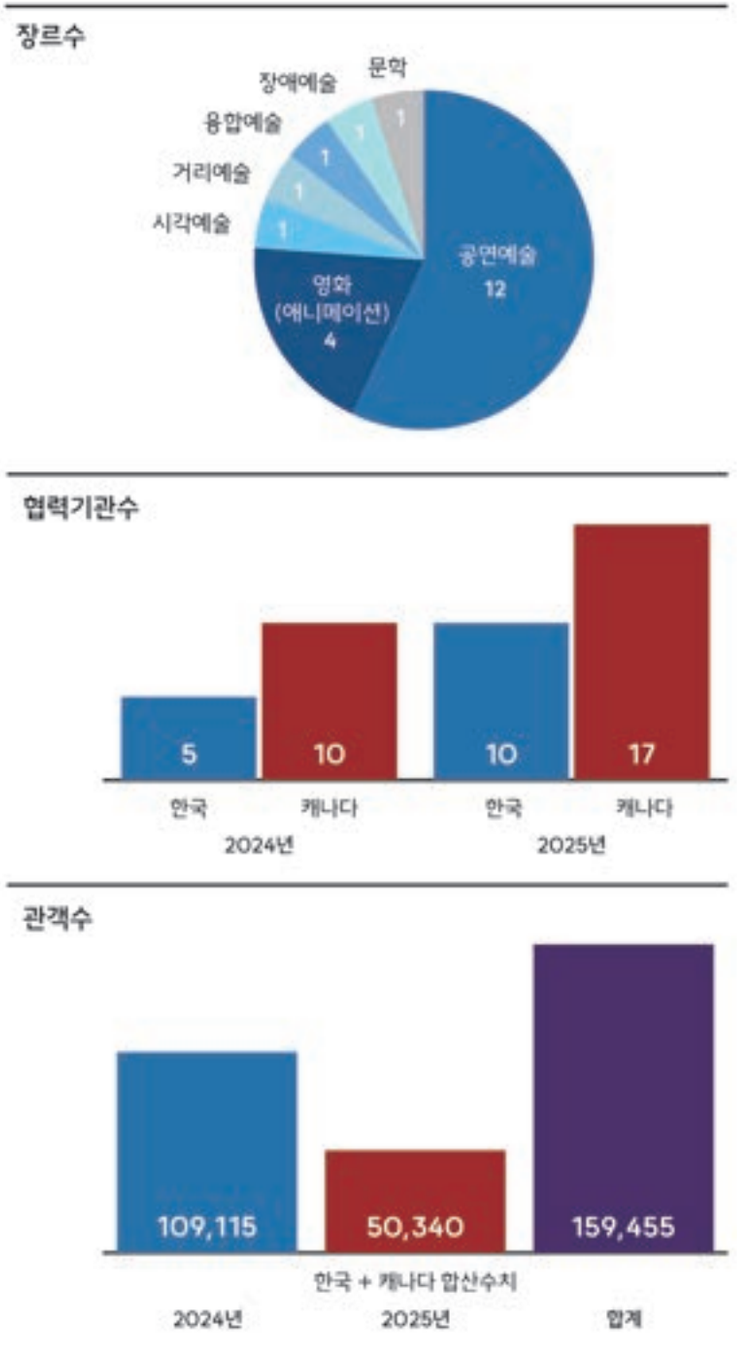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는 2년에 걸쳐 한국과 캐나다에서 총 32개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추진하였다.

장애예술, 뮤지컬, 융합예술,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통해 다자간 쌍방향 협업을 중심으로 한 문화예술 교류를 실현하며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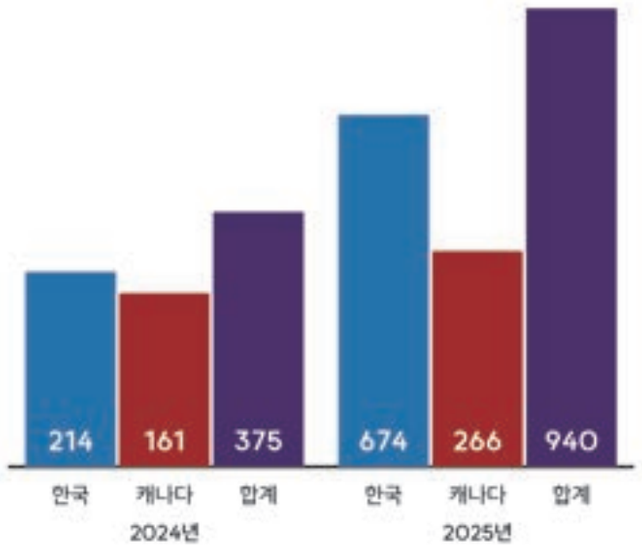
2024년에는 개막행사, 음악 공동 창·제작, 애니메이션 특별전 등을 통해 교류의 출발점을 형성하고, 예술가와 기관이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는 협업 구조를 구축하였다.

이어 2025년에는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뮤지컬 공동 창·제작, 장애예술 교류전, 융합예술 특별전 등을 추진하며 공동 창작과 포용적 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협업의 범위와 깊이를 한층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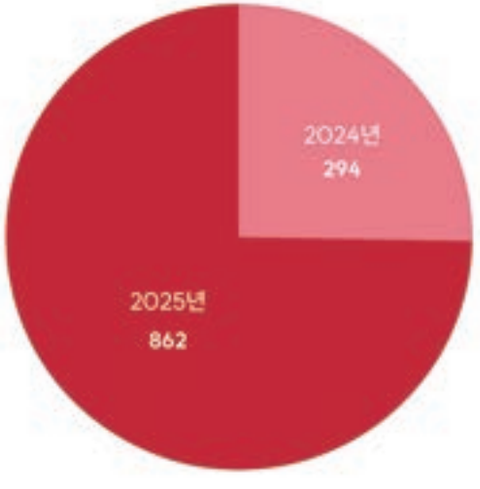
이와 같은 연차별 사업 추진을 통해 2년간 총 159,455명의 관객과 37개 협력기관(중복 제외), 1,315건의 언론 보도를 기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문화예술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언론보도수



언론보도매체수



주요사업 사업만족도



주요사업 문화교류 기여도



주요사업 한국문화 이미지향상



3

2024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막행사 <이음>

2024년 6월 25일, 캐나다 오타와 소재 캐나다 국립아트센터(National Arts Centre, NAC)에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막행사 및 기념공연이 개최되어, 양국 간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행사에서는 CTV, CBC 등 캐나다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어 '상호 문화교류의 해'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NAC에서는 양국 정부 및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OU 체결식이 열려, 향후 문화예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어진 리셉션에서는 양국 관계자 간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 협력의 중장기적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하는 자리가 형성되었다.
개막 기념공연은 전석매진을 기록하며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 업무협약(MOU) 체결식



· 기념공연 <이음>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소프라노 캐롤 앤 루셀의 협연



· 국립국악관현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티모시 추이의 협연



· 관객호응에 화답한 앵콜무대



· 공연 종료 후 출연진의 무대인사



· 커튼콜에 이어진 관객의 기립박수



개막행사에 참석한 인사들의 메시지

"상호 문화교류의 해가 양국의 새로운 문화적 다양성을 발견하고 포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유인촌, 전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한국과의 협력으로 캐나다의 문화적 다양성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양국의 창의성과 예술성을 기념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 파스칼 생 옹쥬, 전 캐나다 문화유산부 장관 -

"캐나다 문화와 퀘벡의 유산이 어우러진 이번 행사를 통해 문화교류가 지닌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소프라노, 캐롤 앤 루셀-

"캐나다 아티스트의 소리와 연주를 통해 한국과 음악적 교류할 수 있었던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 지휘자, 채치성 -

한국-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사업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국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아트밸리 아산재즈페스티벌, 캐나다 오포드 뮤직(Orford Musique)과 뱅상당디 음악학교(École de musique Vincent-d'Indy)와 협력하여 '한국–캐나다 음악 공동 창·제작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한국 아티스트를 선발하고, 캐나다 음악인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양국 음악인의 참여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의 청년·중견 음악인 6인으로 구성된 '한국–캐나다 송북(The Korea–Canada Songbook)' 그룹이 결성되었으며, 한국 측에서는 김영후(더블베이스), 정지수(피아노), 노은실(판소리), 캐나다 측에서는 자크 쿠바 세귄(Jacques Kuba Séguin, 트럼펫), 에두아르 투셰트(Édouard Touchette, 트롬본), 알랭 부르조아(Alain Bourgeois, 드럼)가 참여하였다. 국적과 장르를 아우르는 밴드 결성은 단발성 협업을 넘어, 지속적인 공동 창작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의미를 지닌다.

참가자들은 2024년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캐나다 오포드 뮤직 레지던시에 참여하여 곡을 공동으로 창·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6곡의 신작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작품은 2024년 10월 4일과 6일 캐나다 오포드 뮤직과 뱅상당디에서 공연을 통해 초연되었고, 이후 10월 19일 자라섬재즈페스티벌과 10월 20일 아트밸리 아산재즈페스티벌에서 국내 공연으로 상연되었다.

캐나다 공연에는 총 414명의 관객이 참여하였으며, 한국 공연에는 총 9,750명의 관객이 관람하였다. 본 사업은 공모–밴드 결성–공동 레지던시–창작–상연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추진 구조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 음악인 간 실질적인 공동 창작 기반을 구축하고, 양국 재즈·월드뮤직 분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 오포드 뮤직 레지던시를 통한 공동 창작 과정



· 캐나다 오포드 뮤직 공연



· 한국 자라섬재즈페스티벌 공연



· 한국 아트밸리 아산재즈페스티벌 공연



공동 창작에 참여한 예술가들의 메시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모든 참여자에게
의미 있는 창작 경험이 되었습니다."

– 더블베이시스, 김영후 –

"창의적인 교류의 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 트럼펫, 자크 쿠바 세귄 –

"음악적 교류를 넘어 문화적 교류의
시간까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협업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 피아니스트, 정지수 –

한국-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

2024년 9월과 10월, 한국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ucheon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과 캐나다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Ottaw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가 협력하여 양국 애니메이션 특별전을 상호 개최하였다.

<한국특별전>

2024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캐나다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OIAF)에서 '한국 애니메이션 특별전'이 개최되었으며, 한국 장·단편 애니메이션 총 11편이 4회차에 걸쳐 상영되었다.

바이타운 시네마(ByTowne Cinema), 아츠코트(Arts Court), 오타와 아트 갤러리(Ottawa Art Gallery)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 공간에서 상영되었으며, 장편 '연의 편지(Your Letter)'를 포함해 정유미, 정다희, 김강민, 임채린 등 한국 주요 감독들의 단편 작품이 관객에게 선보여졌다.

상영 이후에는 감독과의 대화(GV)가 진행되어 작품 제작과정과 연출의도를 공유하는 등 창작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주캐나다한국문화원과 협력하여 한복상자를 활용한 한복체험과 한국 생활문화를 소개하는 '사랑방·안방상자' 전시가 함께 운영되어, 현지 관객이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3일간 총 627명의 관객이 참여하여 OIAF 기간 중 한국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에 대한 현지 관객의 관심을 확인하였다.

· 한국특별전 상영 후 감독과의 대화 진행 장면



· 한국특별전 장편 <연의 편지(Your Letter)> 상영



프로그램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연의 편지 Your Letter** 감독과의 대화(김용환 감독)	김용환	바이타운시네마
단편	**BIAF2024 트레일러** - Spotlight on Korean Animation: Short Films	세바스티앙로덴바흐, 키아라말타 Sébastien LAUDENBACH, Chiara MALTA	아츠코트
	먼지 아이 Dust Kid	정유미	
	오목어 Noodle Fish	김진만	
	의자 위의 남자 **Man on the Chair**	정다희	
	사슴꽃 Deer Flower	김강민	오타와 아트 갤러리
	너구리와 손전등 **Racoon and the Light**	김한나	
	꽃 Flora	임채린	
	아홉 살의 사루비아 **Salvia at Nine**	장나리	
	마법이 돌아오는 날의 바다 **The Sea on the Day When the Magic Returns**	한지원	
	서클 Circle	정유미	

<캐나다 특별전>

2024년 10월 26일부터 29일까지 부천국제애니메이션페스티벌(BIAF)에서는 '캐나다 애니메이션 특별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특별전에는 장편 감독이자 심사위원인 앤 마리 플레밍(Anne Marie Fleming), 단편 감독이자 심사위원인 테오도르 위셰브(Theodore Ushev), 그리고 OIAF 프로그램 디렉터 데빈 하틀리(Devin Hartley)가 참석하여 현장 교류를 강화하였다.

행사 기간동안 캐나다 장편 2편과 단편 13편 등 총 15편이 CGV 부천, 한국만화박물관, 부천시청 어울마당 등에서 4회차에 걸쳐 상영되었다. 장편 윈도 호스(Window Horses) 상영 이후에는 앤 마리 플레밍 감독이 참여한 감독과의 대화가 진행되었으며, 단편 프로그램에서도 테오도르 위셰브와 데빈 하틀리가 참여한 관객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캐나다 애니메이션의 예술적 특징과 제작 과정, 감독의 창작 세계를 심층적으로 공유하는 등 국제 창작교류의 가치가 확장되었다.

4일간 총 497명의 관객이 참여하였으며, 캐나다 특별전은 BIAF 기간 중 부천 지역에서 관객 친화적으로 운영되어 양국 애니메이션계 주요 인사 간 네트워크 형성과 문화교류 확대에 기여하였다.

· 캐나다 특별전 테오도르 위셰브 감독 스페셜 토크



· 캐나다 특별전 앤 마리 플레밍 감독 스페셜 토크



프로그램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윈도호스 Window Horses**	앤 마리 플레밍 감독 Ann Marie Fleming	한국만화박물관
	감독과의 대화(앤 마리 플레밍 감독)		
	용감한 돌고래 벨루와 바닷속 친구들 **Katak : The Brave Beluga**	크리스틴 달레르-듀퐁, 니콜라 르메 감독 Christine Dallaire-Dupont, Nicola Lemay	부천시청 어울마당
단편	**OIAF22 시그널 필름** **OIAF22 Signal Film**	윈스턴 해킹 Winston Hacking	CGV 부천
	수영장의 게 **A Crab in the Pool**	장 세바스티앙 하멜, 알렉산드라 미요트 Jean-Sébastien Hamel, Alexandra Myotte	
	마이나르스키 데스 플러밋 **Mynarski Death Plummet**	매튜 랜킨 Matthew Rankin	
	메니스 : 비밀의 섬 **Meneath: The Hidden** **Island of Ethics**	테릴 칼더 Terril Calder	
	헤르조그의 치킨 Herzog's chicken	루카스 콘웨이 Lucas Conway	
	터빈 Turbine	알렉스 보야 Alex Boya	
	에로디움 덩크 Erodium Thunk	윈스턴 해킹 Winston Hacking	
	소나무 그림자 **In the Shadow of the Pines**	앤 코이즈미 Anne Koizumi	한국만화박물관
	고슴도치의 집 Hedgehog's Home	에바 츠비야노비치 Eva Cvijanovic	
	리빙 드림 Living the dream	벤 마인하르트 Ben Meinhardt	
	플라잉 세일러 Flying Sailor	아만다 포비스, 웬디 틸비 Amanda Forbis, Wendy Tilby	
	블라인드 바이샤 Blind Vaysha	테오도르 위셰브 Theodore Ushev	
	OIAF23 시그널 필름 **OIAF23 Signal Film**	매튜 랜킨 Matthew Rankin	
	스페셜 토크 (테오도르 위셰브 감독, 데빈 하틀리(Devin HARTLEY)OIAF 프로그램 디렉터)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2024년 1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캐나다 국제공연예술마켓(CINARS)’에는 주한퀘벡정부대표부 등 현지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한국 청년예술가 3개 팀(육사크사나, 백다솜, 큐댄스컴퍼니)이 참여하였다. 본 사업은 청년예술가에게 국제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역량의 해외 검증 및 시장 연계를 지원함으로써 양국 간 중장기 문화교류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음악·무용·다원예술 분야의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쇼케이스, 피치세션, 부스 운영 등 현지 공연예술 마켓 환경에 대응한 종합적인 진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11월 14일 리알토 극장(Rialto Theatre)에서 열린 쇼케이스에는 육사크사나, 백다솜, 큐댄스컴퍼니가 참여하여 약 192명의 관객을 대상으로 공연을 선보였다. 같은 날 진행된 ‘코리아 포커스 피치세션’에는 청년예술가와 함께 국립극단, 전주세계소리축제 등 국내 주요 공연예술 기관이 참여하여 한국 공연예술 전반의 창작 동향과 주요 작품을 소개하였다. 해당 피치세션에는 73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좌석 점유율 121.67%를 기록하며 높은 관심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기관 발표 및 부스 운영을 통해 47개국 약 1,300명의 문화예술 관계자에게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한국 청년예술가의 작품과 함께, 국공립·대표 축제를 포함한 한국 공연예술 생태계 전반과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취지를 소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 결과 북미·유럽·아시아·오세아니아 등 7개국 19개 기관으로부터 후속 협업 의사가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한국 청년예술가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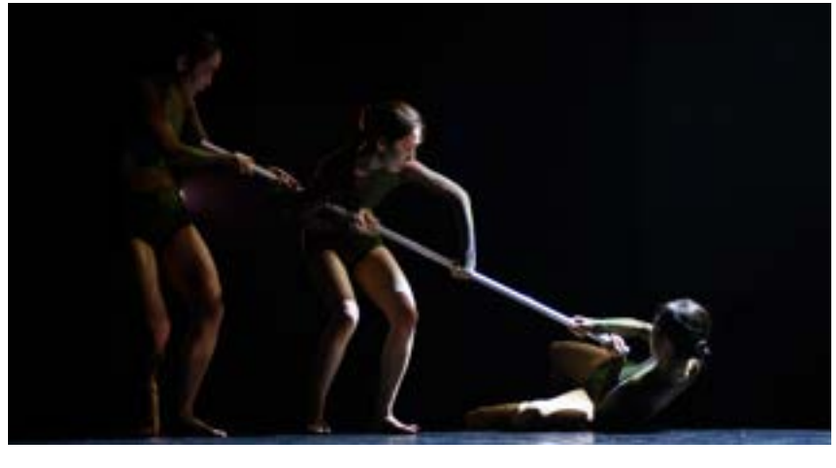
· 한국 청년예술가 홍보를 위한 부스운영



· 육사크사나 쇼케이스



· 큐댄스컴퍼니 쇼케이스



· 백다솜 쇼케이스



· 쇼케이스 커튼콜



· 피치세션 모습



한국-캐나다 문학출판 교류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몬트리올도서전(Salon du Livre de Montréal), 몬트리올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 주캐나다한국문화원, 주한퀘벡정부대표부와 협력하여 '한국-캐나다 문학출판 교류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양국 간 문학·출판 분야의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인적·문화 교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몬트리올도서전 내 K-북 전시관 운영, 인적교류 프로그램, 도서 기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몬트리올도서전에서는 'K-북과의 조우, 문화를 잇다'를 주제로 그림책·문학·웹소설·특별전시 등 총 111권의 K-북이 전시되었으며, 정유정, 윤고은, 수신지, 밤코, 박기태, 소울풍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 6인이 참여한 북토크와 한글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현지 관람객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였다.

또한 몬트리올대학교와 몬트리올 베니 도서관(Bibliothèque Benny)에서는 한국-캐나다 그림책 워크숍과 문학 대담회 등 인적교류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양국 작가 간 창작 교류가 이루어지고지역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접근성이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그림책 500종과 K-북 전시 도서 93권을 몬트리올대학교 및 세종학당에 기증하여, 현지에서의 후속 활용 기반도 마련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몬트리올도서전에는 총 92,000명의 방문객이 참여하였으며, 인적교류 프로그램에서는 워크숍 좌석 점유율 175%, 문학 북토크 좌석 점유율 75%를 기록하는 등 현지 관람객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문학·출판 분야에서의 양국 간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되고, 한국문학과 K-북의 해외 인지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 몬트리올대학교 문학 북토크 진행장면



· 몬트리올대학교 문학 북토크 참여작가 기념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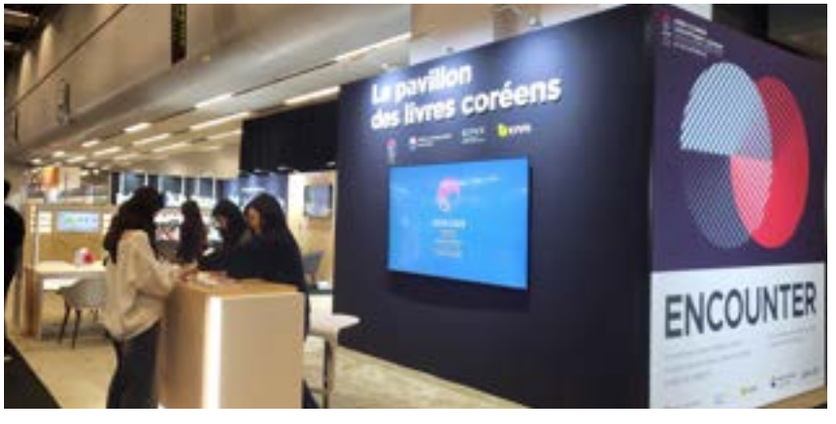
· 몬트리올 베니 도서관 그림책 워크숍 장면



· 밤코작가 강연



· K-북 전시관 전경



· K-북 전시관 전경



4

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

한국-캐나다 미래세대 참여
뮤지컬 공동 창·제작 <링크>

뮤지컬 〈링크(R;Link)〉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약 8개월간 추진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서스캐처원대학교, 카필라노대학교,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 등 캐나다 현지 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다. 본 사업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계기로, 가평전투라는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양국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창작 뮤지컬을 개발·제작하여 한국과 캐나다 양국 무대에서 선보이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한국과 캐나다 청년 예술가들이 대본, 음악, 안무, 연기 등 전 제작 과정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역사적 서사를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재해석한 창작 콘텐츠를 완성하고 실제 공연으로 구현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국제 공동 창·제작 사례로 자리매김하였다. 특히 가평전투와 한국전 당시 캐나다군의 실화를 바탕으로, 캐나다 아이스하키 문화와 양국의 상징적 음악 요소를 결합한 융합적 연출을 통해 역사적 기억을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냈다.

공연은 한국과 캐나다에서 각각 진행되어 총 1,089명의 관객이 관람하였으며, 한국 공연은 평균 객석점유율 95.09%, 캐나다 공연은 평균 객석점유율 82.13%를 기록하는 등 양국 관객의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되었다. 아울러 한국어·영어·크리어(캐나다 원주민어) 등 3개 언어를 활용한 다언어 공연 형식을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관객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공동 창작 과정에서 제작된 뮤지컬의 대본과 음악 IP를 확보하고, 대본집 발간과 성과 영상 제작·아카이빙을 통해 향후 재공연 및 확장이 가능한 콘텐츠 자산을 구축하였다. 한국 공연 수익 전액은 한국전쟁기념재단에 기부되어, 본 프로젝트가 지닌 역사적 의미와 공공적 가치가 공연 성과를 넘어 사회적 환원으로까지 확장되었다.

본 사업은 정부·대학 간 협력을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주도하는 국제 공동 창작의 실행 모델을 구체화하였으며, 예술을 매개로 양국 청년 간 장기적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이를 계기로 한국-캐나다 간 문화예술 협력은 역사적 기억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미래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축적해 나가는 지속 가능한 교류 구조로 확장되었다.

· 뮤지컬 <링크> 발대식



· 뮤지컬 <링크> CKL스테이지 공연



· 리셉션



· 뮤지컬 <링크> 카필라노 블루쇼어 극장 공연



구분	일시	장소
발대식	2025.03.21	캐나다전투기념비
쇼케이스	2025.06.06-08	한양대학교 블랙박스씨어터
한국 공연	2025.07.26-27	CKL스테이지
캐나다 공연	2025.08.15-16	카필라노 블루쇼어극장

한국-캐나다 4개 대학 협력,
청년 배우 19인 (한국 13인·캐나다 6인) 출연

극작·연출·안무 등 전 분야 창작진 97인이 참여한
국제 공동 창·제작 뮤지컬 <링크>

· 한국 공연 단체사진



· 캐나다 공연 단체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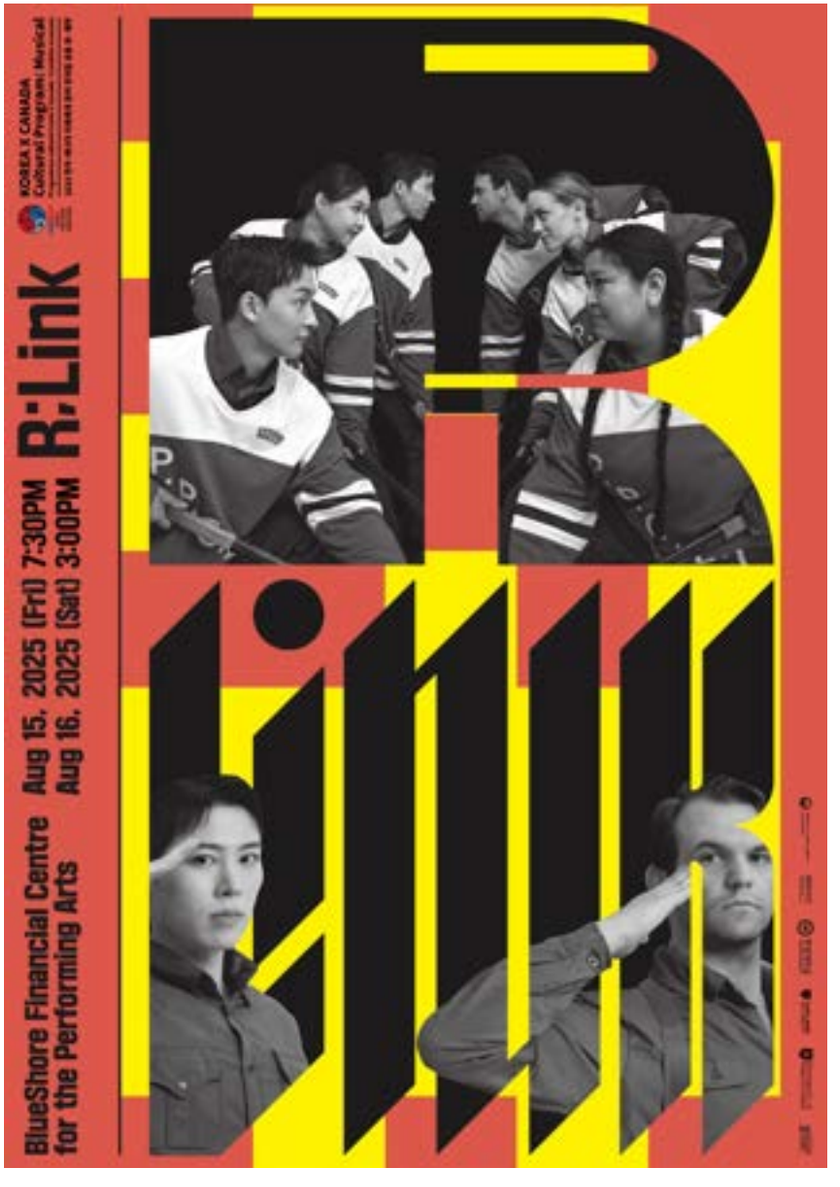


<한국-캐나다 공동제작 뮤지컬 링크(R;Link) 메인 포스터>

· 한국공연 포스터



· 캐나다공연 포스터



뮤지컬 <링크>에 참여한 인사들의 메시지

"이번 뮤지컬은 가평전투를 통해 이어진
캐나다와 한국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의미 있는 울림을 전했습니다."

– 캐나다 상원의원, 연아 마틴 –

"마지막 장면에서
여러 유엔 참전국 국기가 등장하는 순간이
인상 깊었고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담긴 장면이라고 느꼈습니다."

– 배우, 한현구 –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 안에서
사랑과 과거에 대한 인정을 나누는 경험이었습니다."

– 배우, 콜튼 파이프 –

"작은 질문과 대화가 서로를 잇는 다리가 되어
무대 위에 화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협력 연출, 안준환 –

"마지막 장면이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전에 참전했던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공연이었습니다."

– 한국전 참전 캐나다 용사, 레너드 록뮬러 –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열린 균열, 가능성의 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장애예술 분야에서도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가 간 교류가 일회성 전시에 그치지 않고, 양국 장애예술 전문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네트워크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및 캐나다 전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National accessArts Centre, NaAC)와 협력하여, 양국 장애예술인 10인(한국 5인, 캐나다 5인)을 공모를 통해 선발하였다. 양국 전시 개최에 앞서 온라인 워크숍을중심으로 한 사전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회화·설치·판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작가들이 창작 방식과 예술적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신체·지적·청각 등 장애유형과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업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하였다.

전시는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캐나다 캔모어, 토론토, 오타와 등 3개 도시에서 순회 개최되었으며, 이어 11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서울 모두미술공간에서 한국 전시가 개최되었다. 양국 장애예술인 10인의 작품 30여 점이 교차 소개되었고, 패널토론·워크숍·리셉션 등 10여 회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객의 접근성과 참여도를 다각도로 제고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이 특정 영역에 한정된 장르가 아닌, 동시대 예술 담론 속에서 보편적 예술로 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본 전시는 음성해설, 점자 등 다양한 접근성 요소를 전반에 반영하여 장애·비장애 관객 모두가 참여 가능한 전시 환경을 조성하였다. 또한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과 캐나다 전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가 공동으로 그룹전을 기획·운영함으로써 양국 장애예술 전문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향후 장애예술 분야 국제교류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은 장애예술을 매개로 창작자, 전문기관, 관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양국 간 문화예술 협력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형태로 확장될 수 있는 중요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 오타와전시 라운드테이블



· 캔모어전시 작가해설투어



장애예술 교류전에
참여한 작가들의 메시지

"이 문화교류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양국 예술가들이 서로 연결되고
아이디어를 나누며 영감을 주고받는 자리였습니다.
예술에는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 로리 M. 랜드리(Laurie M. Landry), 작가 -

"캐나다 현지에서 예술가들과 교류하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넘어 캐나다에서 제 작업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번 교류를 통해 그 부분이 해소되어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 김은설, 작가 -

· 한국전시 아티스트토크



· 한국전시 작가해설투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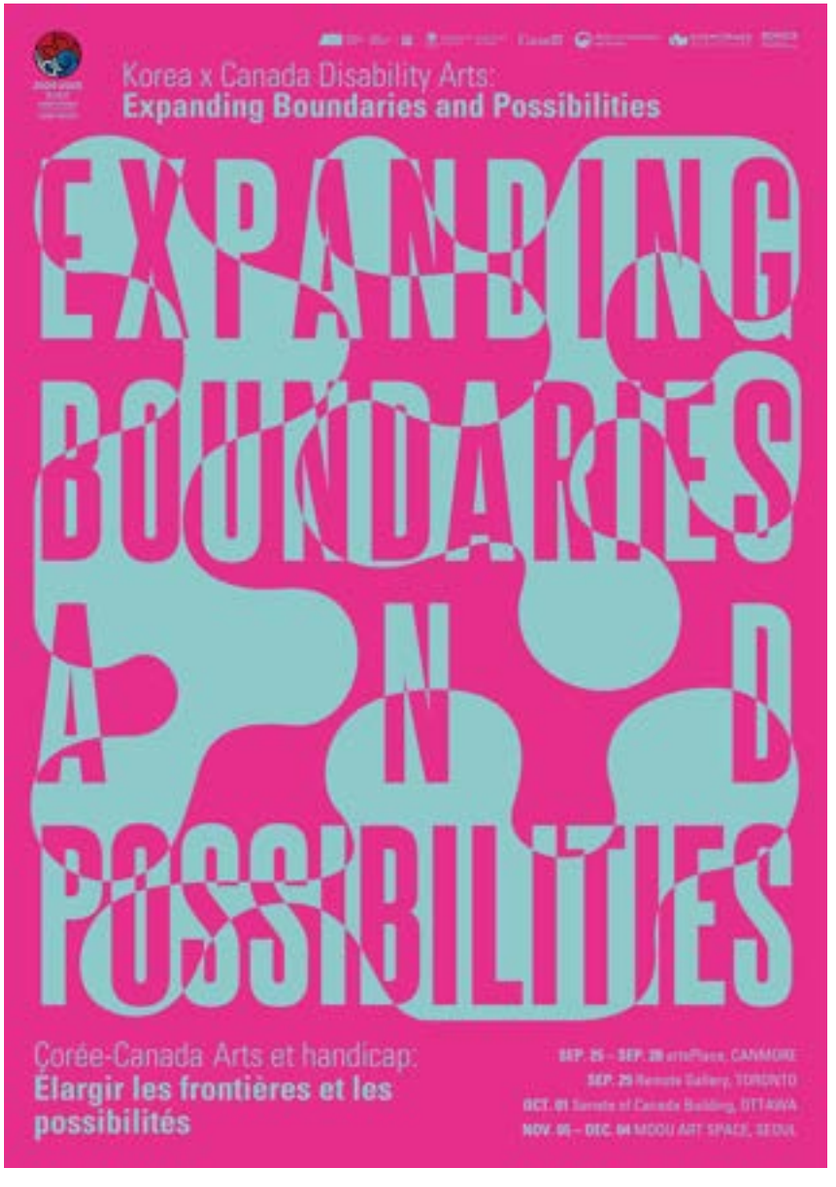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 열린 균열, 가능성의 틈 메인 포스터>

· 한국전시 포스터



· 캐나다전시 포스터



한국-캐나다 융합예술 특별전 <21세기, 인간의 조건>

2025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한국과 캐나다의 시각예술 전문기관이 협력한 ‘한국-캐나다 융합예술 특별전 <21세기, 인간의 조건(Spectrum of Humanity)>’이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AI 를 주요주제로, 양국 융합예술 분야의 동시대적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본 특별전은 AI 기반 창작을 중심으로 한 국제 컨퍼런스, 비디오아트 상영, 작가·큐레이터 교류 워크숍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양국 작가·큐레이터 총 17인이 참여해 융합예술 전반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단발성 교류를 넘어, 향후 공동 기획·제작 및 전시 협력으로 확장 가능한 후속 교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행사는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 캐나다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of Canada), 시네마 뒤 뮤제(Cinéma du Musée), 국립현대미술관(MMCA) 등 양국 문화예술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립기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업 모델을 구현하였다. 특히 캐나다 국립영화 위원회 리셉션 공간에서 한국 작가들의 융합예술 작품이 소개되어, 한국 현대미술의 실험적 작업 방식에 대한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디오아트 상영 프로그램에서는 총 7편(장편 1편, 단편 6편)의 한국 작품이 상영되어 총 207명의 관객이 참여하였으며, 상영 이후 진행된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과 제작배경을 심층적으로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특히 김아영 작가의 작품 <딜리버리 댄서의 구> 는 캐나다 최초로 소개되며 현지 관객과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AI 시대를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에는 국제 전문가 63명, 리셉션 참여자 94명 등 총 157명의 양국 시각예술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반 창작과 몰입형 콘텐츠 등 국제 예술계의 주요 흐름을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둘러싼 국제적 담론이 형성되고, 융합예술 분야의 협력 가능성이 구체화되는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기관 간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한국 융합예술 콘텐츠의 해외 소개와 전문가 교류를 병행함으로써, 한국-캐나다 간 융합예술 분야 교류의 깊이와 지속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문화예술 협력이 단순한 작품 소개를 넘어, 동시대적 담론과 창작 방식의 공유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리셉션



· 컨퍼런스



· 비디오상영회



구분	일자, 장소	프로그램
컨퍼런스 및 리셉션	**2025.08.18**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주제 : AI 시대의 영화 제작 방식 모더레이터 **한국** 이수정 **캐나다** 루이 리샤르 트롬블레 패널 **한국** 유태경, 지하루 **캐나다** 넬리 이브 라조트, 알렉스 보야
		VR 작품전시: 유태경, 권하윤 네트워킹 리셉션
양국 작가·큐레이터 교류 워크숍	**2025.08.19-20** 캐나다 국립미술관 세미나실	양국 작가·큐레이터 교류 워크숍
	2025.08.19-20 오타와 지역 주요 갤러리	오타와 주요 미술관 참관 및 작가 스튜디오 방문
	2025.08.20 캐나다 국립미술관 테번앳더갤러리	양국 작가·큐레이터 네트워킹 리셉션
비디오 아트 상영회	**2025.08.22-23** 시네마 뒤 뮤제	**김아영** 딜리버리 댄서의 구 **임흥순** 위로공단 **염지혜** 마지막 밤, 검은 태양 X : 캐스퍼, 마녀 그리고 물구나무종, 에이아이 옥토퍼스 **파킹찬스** 파란만장, 반신반의
작가와의 대화		출연진 임흥순, 염지혜, 박찬경 작가 내용 관객과의대화,질의응답

<한국-캐나다 융합예술 특별전 메인 포스터>

· 메인 포스터





한국-캐나다 거리예술축제 교류지원 사업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을 대표하는 거리예술축제 간 연계를 통해 예술가 교류를 확대하고 도시 공간을 매개로 한 현장 중심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한국-캐나다 거리예술축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기존 실내 공연장 중심의 교류 방식에서 벗어나, 거리예술이라는 개방적 장르를 통해 양국 시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교류 모델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서울거리예술축제(Seoul Street Arts Festival)와 캐나다 몬트리올 골목길 예술축제(Festival des Arts de Ruelle, FAR), 주한퀘벡정부대표부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양국 축제는 각각 공모를 통해 참여 작품을 선발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한국과 캐나다 각 2개 팀씩 총 4개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는 단발성 초청 방식이 아닌, 축제 간 협력에 기반한 공동 프로그램 구성 방식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캐나다에서는 2025년 9월 6일부터 7일까지 몬트리올 골목길 예술축제(FAR) 기간 중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팀 '걸작들(Masterpiece-s)'과 '루모스씨어터(Lumos Theater)'의 공연이 공원과 거리 등 다양한 도시 공간에서 진행되었다. 이어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청계천 일대에서는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 프로그램이 개최되어 캐나다 팀 '이폴리트(Hippolyte)'와 '엘리트 드 라 글라스(L'Élite de la Glisse)'의 작품이 시민들과 만났다. 일상적인 도시 공간을 무대로 한 공연은 관람객이 우연히 예술을 마주하는 경험을 제공하며, 거리예술이 지닌 개방성과 현장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본 사업을 통해 양국에서 총 17회의 거리공연이 운영되었으며, 약 6,800여 명의 시민이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였다. 특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리예술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시민의 거리예술 장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캐나다 공연의 전반적 만족도는 90.56점, 한국문화 호감도는 97.59%로 나타나 본 사업이 한국 문화에 대한 친밀감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서울거리예술축제와 몬트리올 골목길 예술축제 간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향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 등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교류의 틀을 마련하였다.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루모스씨어터 '찰칵찰칵' 공연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걸작들 '신호수vs신호수' 공연



·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 이폴리트 '담쟁이 인간' 공연



·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 엘리트 드 라 글라스 '글라이딩 엘리트' 공연



한국-캐나다 음악축제 교류지원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5년 6월부터 10월까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Jarasum Jazz Festival),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Toronto Jazz Festival)과 협력하여 '2025 한국-캐나다 음악축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양국을 대표하는 음악 축제 간 연계를 통해 국가특별전을 상호 개최하고, 한국과 캐나다 음악인의 국제 무대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되었다.

본 사업은 양국 축제가 공동 큐레이션 방식으로 참여 아티스트를 선정하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2025년 1월부터 양국 축제 간 협의를 통해 출연진을 논의·확정하였으며, 한국과 캐나다 아티스트를 상대국 축제 무대에 소개하는 상호 교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기존 레지던시 및 교육기관 중심의 교류를 넘어, 축제 간에 직접 협력에 기반한 교환 구조를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캐나다에서는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과 연계한 '코리아 온 스테이지(Korea on Stage)'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밴드 '반도(Bando)'가 야외 및 실내 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였다. 이어 한국에서는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캐나다 온 스테이지(Canada on Stage)'를 개최하여, 캐나다 아티스트 '제레미 레드베터 트리오(Jeremy Ledbetter Trio)'가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과 재즈인랩 무대에서 공연을 진행하였다.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에서는 야외 및 실내 무대를 아우르는 2회 공연을 통해 약 1,200명의 관객이 한국 아티스트의 무대를 관람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자라섬 재즈 페스티벌 메인 스테이지 공연을 포함해 총 9,245명의 관객이 캐나다 아티스트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특히 2025년에는 관객 니즈를 반영하여 캐나다 대표 음악상인 주노 어워즈(Juno Awards) 수상 팀을 초청함으로써, 교류 공연 무대를 글로벌 헤드라이너가 참여하는 메인 프로그램으로 격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 결과 관람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관객 전반적 만족도 조사에서도 96.80점을 기록하는 등 프로그램 고도화의 성과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 대표 음악 축제 간 아티스트 교환 구조를 구축하여, 단발성 공연 교류를 넘어 축제 간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새롭게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동기획 및 순회공연 등으로 확장 가능한 중장기적 음악 교류 모델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 코리아 온 스테이지, 반도 공연



· 코리아 온 스테이지, 반도 공연



· 캐나다 온 스테이지, 제레미 레드베터 트리오 공연



· 캐나다 온 스테이지, 제레미 레드베터 트리오 공연



한국-캐나다 어린이·청소년영화제 교류지원 사업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BIKY), 몬트리올 국제어린이영화제(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pour Enfants de Montréal, FIFEM), 주한퀘벡정부대표부 와 협력하여 '한국-캐나다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해'를 계기로 양국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간 국가특별전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상호 개최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문화적 이해를 증진하고 차세대 문화예술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캐나다에서는 2025년 3월 2일부터 9일까지 몬트리올 보비앙 시네마(Cinéma Beaubien)에서 몬트리올 국제어린이영화제와 연계한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를 운영하여 총 12회 상영을 통해 14편(장편 2편, 단편 12편)의 한국 작품을 소개하였다. 또한 박재범·민성아·진성연 감독 등이 참여한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하여, 작품의 창작 배경과 한국 애니메이션·아동청소년 영화의 특성을 현지 관객에게 직접 전달하는 접점을 마련하였다.

이어 한국에서는 2025년 7월 8일부터 1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등 공식 상영관에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와 연계한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을 개최하여 총 30회 상영을 통해 퀘벡 작품 13편(장편 6편, 단편 7편)을 선보였다. 상영과 더불어 감독 및 배우가 참여하는 관객과의 대화(GV)를 운영하고, 개막작 <우주소녀와 로봇>을 중심으로 한 스페셜 클래스, 포럼 '퀘벡과 어린이'를 함께 구성하여 단순 상영을 넘어 창작·산업·문화적 맥락까지 공유하는 심화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영화라는 특화 장르를 매개로 교류 영역을 확대하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최초로 양국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간 공식 교류를 성사시켰다. 아울러 관객 대화, 스페셜 클래스, 포럼 등 심화 프로그램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교류의 깊이를 강화하였으며, 양국에서 약 9일간 총 42회의 상영 및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총 27편의 작품을 소개하여 미래세대가 양국의 영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류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동 기획과 연계 프로그램으로 확장 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프로그램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엄마의 땅: 그리샤와 숲의 주인 Mother Land** 감독과의 대화(박재범 감독)	박재범	보비앙 시네마 Room 1
	피부색깔=꿀색 Approved for Adoption	정, 로랑 브왈로 Laurent Boileau	보비앙 시네마 Room 5
단편	**건전지 아빠 Battery Daddy**	전승배	보비앙 시네마 Room 4
	마이 차일드 My Child	김현주	
	스노우 래빗 The Snow Rabbit	이루비, 이현진	
	아-추! A-Choo	이보름	
	비 빅 Be Big	전다영, 한서아, 김민경	
	유 캔 플라이 You Can Fly	박성배	
	러브 스파크 Love Spark	최유진, 김명주	
	더 브릿지 The Bridge	김소현 외 5인	
	건전지 엄마 Battery Mommy	전승배	
	다섯 번째 계절 The Fifth Season 감독과의 대화(민성아 감독)	민성아	
	디어 마이 베어 Dear my Bear *단편 국제경쟁작 초청 감독과의 대화(진성연 감독)	진성연	
	안녕, 여름 Farewell Summer *쇼케이스 초청	장성지	보비앙 시네마 Room 5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관객과의 대화(박재범 감독)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한국 출연진 기념사진



·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 관객과의 대화



· 스포트라이트 온 퀘벡, 퀘벡과 어린이 포럼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우주소녀와 로봇** Space Cadet *2025 BIKY 개막작	키드 코알라(에릭 산) Kid Koala(Eric San)	영화의전당 중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롯데시네마 부산명지 2관
	스페셜 클래스(키드 코알라(에릭 산) 감독)		
	두니아, 설원의 모험 Dounia:Great White North	마리아 자리프, 앙드레 카디 Marya Zarif, André Kadi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미스 부츠 Miss Boots	얀 라누에트 튀르종 Yan Lanouette Turgeon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중극장
	감독과의 대화(얀 라누에트 튀르종 감독)		
	반짝이는 꿈 Neon Dreaming	마리 클레어 마코트 Marie-Claire Marcotte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패니 Fanny	얀 잉글랜드 Yan England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중극장
	출연진과의 대화(밀리아 코베일 구브로 배우)		
	푸른 하늘 조 Blue Sky Joe	파트리스 소베 Patrice Sauvé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단편	**거인 보프레** Beaupre the Giant	알랭 푸르니에 Alain Fournier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길을 따라서 Detours Ahead	에스더 청 Esther Cheung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중극장
	달세계 파티 The Great Annual Part of the Creatures of the Moon	프랑시스 데자르네 Francis Desharnais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CGV센텀시티 5관
	야생화 Wild Flowers	로돌프 생젤레, 티에리 시루아 Rodolphe Saint-Gelais, Thierry Sirois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CGV센텀시티 5관
	토끼는 어디에서 왔는가 Where Rabbits Come From	콜린 루도빅 라시코 Colin Ludvic Racicot	영화의전당 소극장 영화의전당 중극장
	할머니 마들렌 Madeleine	라켈 산시네티 Raquel Sancinetti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비누 상자 Soap Box	지미G. 페티그루 Jimmy G. Pettigrew	영화의전당 중극장 사하구청 대강당

한국-캐나다 국제영화제 교류지원 사업

2025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주국제영화제(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JIFF)와 밴쿠버 국제영화제(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IFF)와 협력하여 '한국-캐나다 국제영화제 교류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양국 대표 영화제 간 국가특별전을 교차 개최함으로써 영화 분야의 지속 가능한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문가·기관 중심의 상호 교류를 통해 한-캐나다 영화 협력 플랫폼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는 5월 1일부터 8일까지 '캐나다 포커스' 특별전이 운영되어 장편 7편, 단편 3편 등 총 10편의 캐나다 영화가 27회 상영되었으며, 감독·프로듀서·촬영감독 등 영화산업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관객과의 대화(GV), 클래스, 산업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해당 기간 동안 총 3,202명의 관객이 상영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캐나다 영화에 대한 국내 관객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밴쿠버 국제영화제에서는 2025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를 운영하여 한국 장편영화 7편을 총 14회 상영하고, 전 회차에 걸쳐 관객과의 대화(GV)를 진행하였다. 또한 사례연구 발표·대담, 패널토론 등 산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감독과 배우를 넘어 프로그래머 및 산업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업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현지 프로그램에는 한국 감독·배우·제작진과 산업 연사·패널 등 총 17명이 참여하여, 작품 중심 교류와 산업 중심 교류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교류 구조를 형성하였다.

본 사업은 국가특별전 교차 개최를 기반으로 상영-관객 프로그램-산업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창작자와 영화제 관계자, 산업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였다. 특히 감독 중심의 교류 방식에서 확장하여 프로듀서·프로그래머 등 영화산업 전 과정의 주체가 참여하는 산업세션을 운영함으로써, 기획-제작-배급 전 단계에서의 협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양국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프로그램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아기 천사** Cherub 감독과의 대화(데빈 시어스 감독)	데빈 시어스 Devin Shears	CGV 전주고사
	장례를 위한 준비 Measures for a Funeral 관객과의 대화(소피아 보흐다노비치 감독)	소피아 보흐다노비치 Sofia Bohdanowicz	CGV 전주고사 메가박스 전주객사
	잡종 Mongrels 관객과의 대화(제롬 유 감독)	제롬 유 Jerome Yoo	CGV 전주고사
	엄마와 곰 The Mother and the Bear 관객과의 대화(니브 피치먼(Niv FICHMAN) 프로듀서, 김호정 배우, 김철수)	조니 마 Johnny Ma	CGV 전주고사 전북대 삼성문화회관
	뜬소문 Rumours	에번 존슨 Evan Johnson 게일런 존슨 Galen Johnson 가이 매딘 Guy Maddin	CGV 전주고사
	밤의 라사로 Lázaro at Night	니콜라스 페레다 Nicoas PEREDA	메가박스 전주객사
	폴 Paul	드니 코테 Denis COTE	메가박스 전주객사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단편	**니키의 마지막 나날** Days Before the Death of Nicky 관객과의 대화(빈센트 비론(Vincent BIRON) 촬영감독)	드니 코테 Denis COTE	메가박스 전주객사
	지구 뼈의 다도해 – 버냐산맥으로 가는길 Archipelago of Earthen Bones - To Bunya	말레나 슬람 Malena SZLAM	전주디지털 독립영화관
	블랙스크린 A Black Screen Too	레인 베르메트 Rhayne Vermette	

구분	작품명	감독	상영관
장편	**훈련사** Wrangler 관객과의 대화(서은선 감독, 최승윤 배우, 김승화 배우, 김다솔 배우)	서은선	VIFF 시네마, 시네플렉스 #8
	에디 앨리스: 테이크 Edhi Alice: Take 관객과의 대화(김일란 감독, 박에디 배우)	김일란	VIFF 시네마, 시네플렉스 #8
	비누 Savon 관객과의 대화(이준섭 감독)	이준섭	VIFF 시네마, 시네플렉스 #10
	캐리어를 끄는 소녀 Sua's Home 관객과의 대화(윤심경 감독)	윤심경	VIFF 시네마, 시네플렉스 #9
	겨울의 빛 Winter Light 관객과의 대화(조현서 감독)	조현서	VIFF 시네마
	넌센스 The Nonsense 관객과의 대화(이제희 감독, 박용우 배우)	이제희	시네마테크, 시네플렉스 #8
	3670 관객과의 대화(박준호 감독, 조유현 배우, 김현목 배우)	박준호	시네마테크, 시네플렉스 #8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관객과의 대화



· 스포트라이트 온 코리아, 관객과의 대화



· 캐나다 포커스, 관객과의 대화



· 캐나다 포커스, 영화제와의 만남 포럼



한국 청년예술가 후속 지원사업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5 한국 청년예술가 후속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2024년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후속 지원을 도입하여, 청년예술가의 국제문화교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현지 진출과 활동 확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사업은 기존 창작·제작 중심 지원에서 나아가, 해외 초청이 확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항공료와 운송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해외 공연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항공·운송비용을 완화하고, 국제 무대 진출로 실제 연결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5년 공모를 통해 청년예술단체 ‘육사크사나’가 선정되었으며, 해당 단체는 캐나다 피크 페스티벌(Pique Festival), 썬페스트(SUNFEST) 등 해외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되어 총 4회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피크 페스티벌과 썬페스트는 북미를 대표하는 월드뮤직·다문화 축제로, 축제 관람객을 포함해 약 520명의 관객이 현장에서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번 후속 지원을 통해 육사크사나는 단체 설립 이후 처음으로 공식 해외 무대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간 항공·운송비 부담으로 인해 실현이 어려웠던 해외 초청 공연이 본 사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제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본 사업이 국제 초청 성사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이번 해외 공연을 계기로 현지 언론 보도와 소셜미디어 확산이 이루어져, 단체의 해외 인지도 제고와 향후 국제 활동 가능성 또한 함께 확대되었다.

이처럼 ‘2025 한국 청년예술가 후속 지원사업’은 단기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국내 청년예술단체의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핵심적인 비용 부담을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제 활동의 첫 관문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후속 지원 모델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청년예술단체의 국제 무대 진입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글로벌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64Ksana <64개의 찰나> 공연



· 64Ksana <64개의 찰나> 공연



토론토국제영화제 협력사업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주캐나다한국문화원은 토론토국제영화제(Toront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IFF)와 연계하여 한국문화 홍보 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기념하여 북미 최대 규모의 영화제를 플랫폼으로 활용함으로, 한국영화와 K-콘텐츠, 전통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현지 관객 및 영화 산업 관계자와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사업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예산을 지원하였다.

사업은 영화제 기간 동안 야외 문화체험 행사, 한국영화 네트워킹 부스 운영,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세션, 마켓 스크리닝, 한국영화의 밤 등 다층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일반 관람객을 대상으로 문화 체험부터 영화 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 교류까지, 관객-산업-기관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홍보 구조를 구축하였다.

토론토국제영화제 주요 동선에 조성된 야외 행사장에서는 K-콘텐츠 미식 체험, 식혜 시음, 전통 한복 체험, 포토존, K-Travel 부스 등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영화제 기간 동안 약 2만여 명의 현지 관람객이 해당 체험존을 방문하며 한국문화 체험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을 보였고, 이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현지인의 친밀감과 인지도를 제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영화제 산업 허브에서는 한국영화 및 콘텐츠 네트워킹 부스를 운영하여 국내 제작사와 캐나다 및 글로벌 영화 산업 관계자 간의 공식적인 교류를 지원하였다. 행사 기간 동안 약 130여 명의 현지 및 국제 영화 산업 관계자가 부스를 방문하였으며, 총 40여 건의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되어 공동 제작, 배급, 인력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특히 CJ ENM, 바른손 C&C 등 국내 주요 제작사와 해외 바이어 간 교류를 통해 한국영화의 창작 다양성과 산업 경쟁력을 현지 영화계에 소개하며 한국영화의 위상 제고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와 함께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세션과 마켓 스크리닝을 통해 한국에서 개발·제작 중인 주요 프로젝트와 최신 장편 애니메이션 〈아가미〉를 소개함으로써, 해외 배급사 및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국영화 콘텐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영화진흥위원회와 한국영상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현지 네트워킹이 병행되어 한국영화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본 사업은 토론토국제영화제라는 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해 한국영화와 K-콘텐츠, 전통문화와 관광을 유기적으로 연결함으로써 한국문화 전반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 양국 간 영화·문화 교류와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문화상자 체험 프로그램 운영 모습



· 인더스트리 컨퍼런스 세션



· 한국 영화의 밤



2024-2025년 민간공식인증사업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은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계기로, 민간 차원의 우수한 문화교류 사업을 발굴·인증하여 양국 간 지속 가능한 문화교류 기반을 확대하고자 민간 공식인증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사업은 한국과 캐나다 간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정부 차원의 공식 인증을 통해 사업의 공신력과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에 따라 공연·전시·콘텐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민간 교류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및 지정 절차를 거쳐 공식 인증을 부여하고,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로고 사용과 후원명칭 표기를 허용하였다. 또한 카드뉴스 제작과 국가별 상호문화교류의 해 공식 SNS 채널 게시 등 홍보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인증 사업이 보다 폭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7건의 민간 문화교류 사업이 공식 인증을 받아 공연과 전시를 중심으로 한국과 캐나다에서 추진되었으며, 각 사업은 현지 문화예술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2024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민간 문화교류 단체 선정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계기로 민간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대외 인지도가 한층 높아졌다. 그 결과 한국 문화예술 콘텐츠가 캐나다 현지 관객과 직접적으로 만나는 접점이 확대되었고, 상호 문화교류의 해의 취지가 다양한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었다.

사업에 참여한 단체들은 공식 인증을 계기로 해외 협력기관 및 공연장과의 협의 과정이 보다 원활해졌으며, 정부 명의의 후원 표기와 공식 로고 활용을 통해 사업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공연 중심 사업의 경우 안정적인 관객 유입과 높은 객석 점유율을 기록하며 현장에서의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민간 공식인증사업은 민간 문화교류 활동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는 한편, 창작자와 현지 기관, 관객을 연결하는 교류 구조를 보다 촘촘히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캐나다 간 문화예술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24년도 선정단체, 월드뮤직밴드 제나



· 24년도 선정단체, 김호연



· 24년도 선정단체, 커넥티드 에이

· 24년도 선정단체,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



· 24년도 선정단체, 바래(BARE)



· 24년도 선정단체, (사)빛소리친구들



· 25년도 선정단체, 문화예술굴터 빵(FFWANG)



24년도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

2025년 1월 22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2024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주한캐나다대사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양국 협력기관 및 사업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도 추진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2025년도 사업 계획을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서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4년 주요 사업 성과 발표와 함께 선정 사업단체의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한 사례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이어 2025년 추진 예정 사업에 대한 안내가 진행되었다. 이후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의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직접 교류하며 향후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본 네트워킹 데이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차년도 협력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현지 정부 및 유관기관, 사업 수행단체 간의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한국-캐나다 문화교류 사업의 연속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기능하였다.

25년도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

2025년 12월 18일, 주한캐나다대사관에서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의 일환으로 '2025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가 개최되었다.

본 행사는 2년간 추진된 상호문화교류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향후 양국 문화교류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주한캐나다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행사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2024-2025 한국-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기간 동안 추진된 공연예술, 영화, 음악, 시각예술 등 분야별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사업 참여 기관 및 단체의 교류 사례 발표를 통해 성과의 확산 가능성과 향후 발전 방향을 점검하였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캐나다 문화정책과 교류 환경에 대한 심층 발표가 진행되었다. 캐나다 문화정책의 최근 동향과 창조산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한국-캐나다 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과 교류 인사이트를 제시함으로써, 양국 문화교류를 중장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전략적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2부에서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문화예술 기관, 축제, 영화제, 예술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교류의 장이 조성되었다.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향후 공동 기획, 인적 교류, 협력 사업으로의 연계 가능성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협업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처럼 2025 한국-캐나다 네트워킹 데이는 성과 종합 공유를 넘어 정책·전략 논의와 교류 인사이트 제공, 심화 네트워킹을 결합한 구조로 운영됨으로써, 한국-캐나다 문화교류의 확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구체화하는 계기로 기능하였다.

2024-2025 협력기관

한국

국립현대미술관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서울문화재단
아트밸리 아산재즈페스티벌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주캐나다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토론토지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양대학교

캐나다

몬트리올 국제어린이영화제
(Festival International du Film pour Enfants de Montréal, FIFEM)
몬트리올대학교(Université de Montréal)
몬트리올도서전(Salon du livre de Montréal)
뮤텍(International Festival of Digital Creativity
and Electronic Music, MUTEK)
밴쿠버 국제영화제(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VIFF)
뱅상당디 음악학교 (École de musique Vincent-d'Indy)
서스캐처원 대학교(University of Saskatchewan)
시네마 뒤 뮤제(Cinéma du Musée)
오타와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Ottawa International Animation Festival, OIAF)
오포드뮤직(Orford Music)
주한퀘벡정부대표부(Délégation du Québec à Séoul)
주한캐나다대사관
(Embassy of Canada to the Republic of Korea, in Seoul)
카필라노 대학교(Capilano University)
캐나다 국립아트센터 오케스트라
(National Arts Centre Orchestra, NAC Orchestra)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NFB)
캐나다 국제공연예술마켓(CINARS Biennale)
캐나다 몬트리올 골목길 예술축제(Festival des Arts de Ruelle, FAR)
캐나다 문화유산부(Canadian Heritage)
캐나다 원주민 대학교(First Nations University of Canada)
캐나다 전국장애인문화예술센터(National accessArts Centre, NaAC)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 CCA)
퀘벡문화부
(Société de développement des entreprises culturelles, SODEC)
토론토 재즈 페스티벌(Toronto Jazz Festival)

2024 -2025
한국-캐나다
상호 문화교류의 해
2년의 기록

KOREA-CANADA
Year of Cultural Exchanges
A Two-Year Journey
L’année des échanges culturels
CORÉE-CANADA
Un parcours de deux ans

발행일
2025년 12월

발행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03923)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더팬빌딩 4층
전화 02-3150-4811/4815
팩스 02-3150-4872
www.kofice.or.kr

기획
교류사업본부 여현경 본부장
교류사업본부 상호문화팀
박지현 팀장
김은정 과장
박미진 주임
이유미 주임
강지연 주임

편집·디자인
(주)애프터눈

